

서울 정상회의로 가는 길: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

대한민국 대통령

이 명 박

From “The G20 Seoul Summit 2010: Shared Growth Beyond Crisis,”
edited by John Kirton and Madeline Koch, published by Newsdesk Media 2010

세계 경제는 현재 세계금융위기를 지속적으로 극복하고 있으나, 혼란스러운 사태가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도 확실한 한 가지는, 최근 위기가 형성된 G20간 긴밀한 경제 협력이 미래에는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계 경제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G20 국가간의 유례없는 정책 협력으로 세계경제가 보다 악화될 수 있었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G20이 세계 경제 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 새로운 지위를 부여된 것은 현재까지의 입증된 성공에 기인한 것입니다.

11월 G20 서울정상회의를 유치하고 G20의 의장국 역할을 하는 한국의 지도자로서, 나는 G20이 세계 경제를 회복의 길로 이끌도록 하는데 정책을 공조하는 주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한편 G20은 단순히 위기 관리를 넘어 더 많은 것과 관련됩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은 장기적인 정책 공조를 향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G20을 통해 세계경제가 향후 몇 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균형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 경제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울 정상회의의 모토는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 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과업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책공조에서 G20이 이미 성공하여 향후 정책 공조를 더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더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하면 모든 사람들은 정책 공조를 위한 필요성을 쉽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앞의 위기가 약화되거나 지역 차원의 위기로 전환할 때, 정책결정자들은 안도감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출구전략의 적절한 시행 순서와 속도 및 지속가능한 공적 부채의 수준에 대한 견해는 나름대로 정당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최적 수단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국가의 경제정책 효과는 주변 국가들과 함께 이루어질 때 높아진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인식은 상호 쌓아올릴 공동 기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 정상회의의 과업 리스트가 많고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G20 정상들이 은행자본 및 유동성 기준 강화와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과 청산 문제 제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부문 개혁 이행을 약속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들은 보다 복원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세계 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체계적 위험의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G20은 IMF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기존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세계경제에서 각국의 상대적인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IMF 지배구조 개혁을 현대화하는 것은, IMF의 신뢰성, 정당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별도 의제로서 한국은 국가들이 경제실물과 분리되는 금융시장에 사전 대응책으로 자본변동성, 금융취약성 및 위기 확산 등에 대처하는 것을 도우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안을 IMF와 긴밀히 협조하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정상회의에서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제(Framework)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동 협력체제는 정책 공조를 통해 G20 회원국들에게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기의 원인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공동 목표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미래 지향적인 과업에 우리 자신을 몰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난 번 기고에서 좁은 거시경제 의미의 균형을 넘어 보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된 성장 개념을 인식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균형의 보다 넓은 개념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를 줄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국은 개발이니셔티브를 통해 동 임무를 G20 의제에 확실히 올려 놓았습니다.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개발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들을 보완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분명한 G20 개발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공동 주재하는 개발실무그룹을 설치하였습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경제성장입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어떻게 빈곤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발전을 통해 빈곤을 성공적으로 퇴치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한 국가로서, 많은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의 엄청난 충격과 함께 견고한 경제 회복을 확고히 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은 개도국과 신흥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성공 및 실패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직접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발 실무그룹의 임무가 G20의 개발원칙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들을 잘 다듬어 정제하는 것입니다. 동 개발 원칙들은 각국 정상들이 구체적인 실천 사업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은 개발을 핵심의제로 하면서 많은 개도국들이 G20에 대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민감하게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은 국제기구 및 지역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폭넓은 외연확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빈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결실을 공유하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우리가 함께 효과적으로 공조를 통해 위기 대응하였으며, 이제 보다 장기적인 이슈들에 대해 진정한 세계적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는 포럼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까지 생성된 모멘텀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서울정상회의는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을 보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